



## 무등산 눈꽃 산행

12월 첫 휴일인 7일 오후 시민들이 무등산 누에봉을 올라가며 하얀 눈꽃을 즐기고 있다. 지난 5일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눈은 영광 29cm를 비롯, 목포 14.8cm, 완도 7.8cm, 광주 5.2cm 등을 기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젊은층·전남 노인층 암 환자 증가율 전국 최고

### 2007 암 진료환자 분석

암 환자 증가율이 광주는 젊은 층에서, 전남은 노인 층에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발표한 '2007년 건강보험 암 진료환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건강보험대상자 중 암 진료환자는 모두 1만2천159명(광주 4천162명·전남 7천997명)으로 신규 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도별 암 진료 환자비율은 노

인인구 비율 최상위인 전남이 인구 10만명당 1천479명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10만명당 1천36명으로 전국 평균(1천32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천은 822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난해 처음 암 치료를 시작한 신규 암 환자 비율에서도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의 2007년 신규 암 진료환자는 10만명당 474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 증가율을 보였으며, 증가율 두 번째인 전북(392명)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

은 10만명당 292명이다.

광주는 지난해 신규 암 진료환자가 10만명당 31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규 암 진료환자 수를 연령별로 표준화시킨 신규 암 진료환자 수에서 10만명당 376명(남자 362명·여자 392명)을 기록해, 전국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암 발생률이 전체 인구 발생률 평균의 4배 이상을 차지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광주는 65세 미만의 나이대에서 암이 빈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소비자 물가 이어 이번엔 공공요금까지...

# '줄줄이 인상' 서민은 벼랑끝

### 내년 상수도·시내버스 등 10% 선

내년 초 광주시의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을 신호탄으로 상수도과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요금 등이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공공서비스요금은 그동안 정부의 물가 동결 방침에 따라 인상이 보류돼 왔다.

광주시 여성발전센터는 내년 1월부터 수영장 1일 입장료(성인 : 3천500원→4천원, 청소년 : 2천200원→2

천500원, 어린이 : 1천700원→2천원)를 인상하고, 월(1개월) 회비를 현행 4만6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최근 입법 예고했다.

광주시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 냉·난방 사용료 30% 인상, 도시공사는 열주파르 골프장 이용권(3회, 13만원→14만5천원) 요금을 올리기 위해 최근 조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들 공공시설 이용료는 수년 동안 동결됐으나 올해 유가 폭등으로 적자가 누적돼 부득이 인상을 추진하게 됐

다는 게 시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내년 4월에는 상수도 요금도 인상된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생산단가가 1t당 603원인데 비해 공급단가는 1t당 529원에 그쳐 2007년 말 현재 96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가정·산업용 상수도 요금이 현행보다 7~9%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여기에도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경우도 올해 유가 급등으로 100억원의 시 재정이 추가 투입되는 등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인상을 10% 안팎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버스 요금이 인상될 경우 시내버스와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하철 요금도 자동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LPG 가격 인상으로 경영년을 호소해온 법인택시 업계도 요금 인상을 요구. 현재 택시요금 인상 검증역이 실시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현행 2km당 1천800원인 기본요금을 2천500원으로 38% 인상해줄 것을 광주

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 역시 내년 상반기 중 상수도와 도시가스 요금, 택시 요금 등 일부 공공서비스 요금을 5~1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부분의 공공요금은 올해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동결됐다는 점에서 내년에 소폭이나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성무지구 M타워 508  
062-271-4111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062-271-4111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김사진  
호남한샘학원  
062-271-4111

## 전남 유명 해수욕장 이름 바꾼다

### 신안 하늘섬 해수욕장→하트해변

### 여름 한 철 아닌 사계절 상품으로

해남 송호해수욕장 등 전남을 대표하는 유명 해수욕장들의 이름이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 현재 사용되는 이름들은 전국적 인지도가 낮은데다, 해수욕장만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아 외지인들을 끌어 모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여름 한철에만 사용되는 '해수욕장'이라는 명칭을 '해변'으로 바꿔 사계절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해수욕장 이름 변경 작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곳은 전남도 내 62개 해수욕장 가운데 15%인 9곳이다.

지난해 방영된 TV드라마 '봄의 왈츠'에서 촬영지로 소개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신안 하늘섬 해수욕장은

내년부터 신안 '하트해변'으로 이름이 바뀐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해수욕장의 해변이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데서 착안했다. 또 '땅끝' 해남에 위치한 송호해수욕장은 '땅끝 송호해변'으로, 검은 모래가 특징인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은 '만성 검은 모래해변'으로 각각 바뀐다. 완도군 금일면 명사리 해수욕장은 '금일 해당화 해변'으로, 해남 사구미 해수욕장은 '사구미 해변'으로 불리게 된다.

명칭 변경작업이 사실상 확정된 이들 5개 해수욕장 이외에도 추가로 4곳은 명칭 변경을 위한 지역민 의견 수렴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의 나로 해수욕장은 '나로 우주해변'으로, 고흥의 남열 해수욕장은 '남열 해돋이해변'으로, 그리고 영광의 가마미 해수욕장과 송이도 해수욕장은 각각 '가마미 송림해변'과 '송이도 몽돌해변'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정부, 지방발전대책 발표 1주일 연기

# "시·도지사 요구 보완"

8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지방발전 종합대책 발표가 1주일 연기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당초 8일로 예정된 지방발전종합대책 발

표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보완책과 지방균형발전 대책에 대해 논의를 했

다"면서 "시·도지사들의 요구 사항 등을 보완해야 하는 만큼 발표 시기를 조금 더 늦춰 달라고 당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홍 원내대표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사이에 논쟁이 오갔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회의를 통해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Z.A.A. Fair Z.A.A. Special  
open: 2008년 12월 20일 오후 2시  
SITE 1 공간해석 프로젝트 2008.12.20\_2009.01.28  
SITE 2 G 1,2. 2008.12.20\_2008.12.25  
SITE 3 open studio 2008.12.20\_2008.12.25  
SPECIAL 1 묵묵(木木)부담 2008.12.20\_2009.01.28  
SPECIAL 2 空感 2008.12.20\_2009.01.28  
SPECIAL 3 신년연하장 2008.12.20\_2008.12.25